

3월 모의고사

핵심문항 해설자료

시쓰는수험생/Fiat_Lux/고속터미널3호선/MRyu

검토: SNUUAA

Special Thanks to 이원준 강사님, Semper Fi님

또한 이후 이부가격설정으로 어떻게 사회적 손실을 보완할 것인지 알 수 있다.

★ 그림에 대한 이해

- 상품의 생산량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정한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된다.
- 상품의 가격은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P_m 이 된다.
- 생산자의 수입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돈이며, “가격 X 생산량”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_mAQ_m 이다.
-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수입 - 생산자가 정해놓은 금액”이다. 제품을 Q_m 만큼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사다리꼴 $O\beta BQ_m$ 이고,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_mAQ_m 이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βP_mAB 이다.
-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수요곡선 참고)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P_m)을 뺀 값이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alpha A$ 이다.

〈문제해설: Problem Analysis〉

16.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④

- ①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이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 ③ 이부가격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 ⑤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답 맞히기]

- 지문에서 총잉여의 개념과 이부가격 설정의 방법, 이부가격설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점·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 방법은 확인 할 수 있지만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경우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④입니다.

17.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어느 지역의 유일한 $\triangle\triangle$ 골프장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은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징수한다.
- ② 한시적인 기간 동안 $\nabla\nabla$ 마트에서는 한 개에 800원 짜리 라면을 다섯 개 사면 3,800원에 열 개 사면 7,400원에 판매한다.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star\star$ 패스트푸드점은 3,000원 짜리 햄버거와 1,000원 짜리 콜라를 함께 묶어 3,500원에 판매한다.
- ④ 어느 지역의 유일한 $\bigcirc\bigcirc$ 철도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상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 ⑤ 어느 지역의 유일한 $\diamond\diamond$ 수도사업소는 수도물 사용량 100톤을 기준으로 추가 소비에 대하여 생산 원가만을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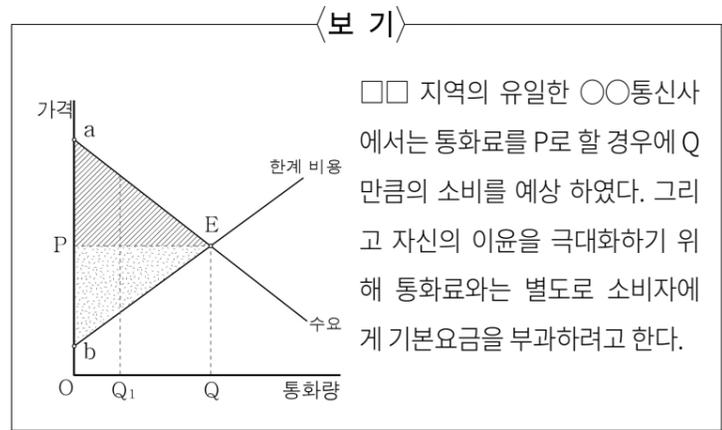
[정답 맞히기]

- ㉠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한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①입니다.
- ㉠의 사례를 본문에서 나온 개념을 이용해서 말하면 이부가격을 설정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한다.’입니다. 먼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를 고려해 보면 ②,③은 독점적(유일한) 공급자가 아님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한다.’를 고려해 보면 ④,⑤의 경우 생산자의 이윤을 늘리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bigcirc\bigcirc$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② $\bigcirc\bigcirc$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_1 일 때 통화료로 P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bigcirc\bigcirc$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bigcirc\bigcirc$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 에 해당할 것이다.

[보기 해석]

보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면

보기	지문
유일한 통신사	독점 지위를 가진 생산자
통화료	놀이기구 이용료
기본요금	놀이동산 입장료

[보기]의 사례는 지문에 나와 있는 이부가격설정의 정의에 의해 생산자가 이부가격을 설정했다 할 수 있다.

[정답 맞히기]

-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수입 - 생산자가 정해놓은 비용”이다. <보기>에 따르면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사다리꼴 $O\beta EQ$, 생산자 수입은 사각형 $OPEQ$ 이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P\beta E$ 이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으로 답은 ①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보기 해석]에 의해 적절하다.
- ③ 통화량이 Q_1 일 때 수요는 통화량이 Q일 때 수요보다 높음으로 소비자는 P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 할 것이다.
- ④ 생산자가 얻는 수입은 “가격 X 생산량”임으로 적절하다.
- 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수요곡선 참고)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P)를 뺀 값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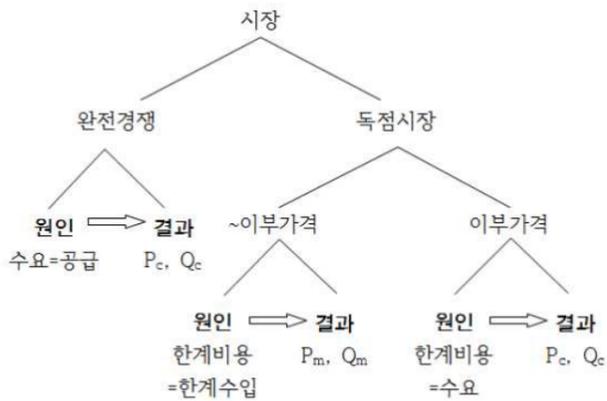
<추가자료: 3월 모의고사 출제 오류 논란>

본 해설지에는 이원준 강사님이 제기했던 18번 문항의 이의제기에 관한 글과 Semper Fi님의 반박글이 담겨있고 본 해설진들의 의견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원준 강사님의 주장

1. <보기>의 그림 관련

본 문제의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므로 18번 그림과 같은 “유일한”(=독점)인 경우 이부가격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즉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18번 문제 <보기>에는 지문의 <그림>과 달리, 한계 수입 곡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1), (2)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수요곡선이 한계수입곡선과 같은 경우.

이 경우라면 18번 <보기>의 가격 P와 통화량 Q는 독점통신사가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과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같다는 가정은 이 둘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지문의 그림과 설명을 고려할 때 매우 무리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계수입곡선이 생략된 경우.

이 경우라면 지문의 이부가격설정과 연결지어 P와 Q점은 “독점 시장에서 기본요금(이부가격)이 설정된 다음의 생산량과 가격”인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설명에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보기>의 그림(부과 후)과 설명의 시제(부과 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우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기>에서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화료가 P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의 생산량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한계 비용과 수요’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결 : (1)이 워낙 무리한 가정이기 때문에 (2)의 해석이 적절합니다.

2. 선지 관련 : 한계수입곡선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선지 ①의 경우 지문의 설명대로 한다면,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지문에서 언급한 대로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독점생산자의 생산자 잉여는 최대 baE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한다고 한 선지 ①도 틀린 선지이긴 하지만, 이를 Pb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해설도 소비자 잉여의 흡수로 인

한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의 경우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설은 가격이 P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가격이므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 기본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통화료)도 P보다 높은 Pm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의 경우도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고, 가격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의 해설도 독점 시장에서 기본 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통화료를 P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3. 결론

선지 ①이 틀린 선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지 ④, ⑤도 틀린 선지이므로 결국 18번 문제의 정답은 세 개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해설은 ①,④,⑤가 모두 부적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수요함수가 선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 기울기의 두 배가 되고 수직축 위의 절편은 똑같다.” (이준구, 「미시경제학」, p.301)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하고 가입비는 그의 소비자 잉여와 같게 만들 때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준구, 「미시경제학」, p.369)

반론의 요지들은 <보기>에서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반드시 P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P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 극대화 조건을 무시한다면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일 수도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모든 반론자들은 통화료가 P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④U⑤) →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 → P)

(2)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 ∩ ~P)

(3) ~④ ∩ ~⑤

저는 (1)과 (2)가 참이라면, 즉 선지 ④와 ⑤가 각각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가 아닐 수도 있다면

선지 ④, ⑤는 거짓이라는 것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Semper Fi님의 주장

그러나 18번 문제에 대해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해본 결과 역시 이 문제는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월 학평 18번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담았습니다.

지문 마지막 문단에는 이부 가격이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우선, 통상적인 독점 기업에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격 및 생산량은 (Q_m , P_m)에서 결정됩니다.

그 후, 해당 기업이 이부가격을 설정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부가격을 부과할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점 (Q_c , P_c) 으로 이동합니다. 이 때 이 새로운 점은 한계비용곡선(이하 MC곡선)과 수요곡선 (이하 D곡선) 이 만나는 점입니다. 지문에서는 Q_c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후 P_c 에 해당하는 만큼을 사용료로 받고, 기본요금은 소비자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받습니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던 독점 기업이 이부가격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이 장사를 하러 온 독점 기업이, 처음부터 이부가격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MC곡선과 D곡선이 만나는 점을 지정한 뒤, 해당 점에서 사용료를 정하고, 소비자 잉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본요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계수입곡선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18번 문제의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통신사에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통화료를 P로 할 경우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합니다.

1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디시인사이드의 문과취직양태 님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댓글 및 글의 내용을 참조하였고 일리가 있다 생각하여 그 분께 허락을 구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출제의도에 국한할 필요 없이 글의 다른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과 주고받은 댓글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8번 문제는 최적점 E를 기준으로 기본료 설정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P라는 가격에서 Q만큼을 공급/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와 여기에 기본요금도 추가로 부과한 이후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비교함으로써 이부가격설정이 어떠한 의미 및 효용을 가지는 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출제의도를 이해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P라는 가격(통화료)에 Q만큼 공급을 하고 별도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묻는 선지가 4번 및 5번 선지입니다. 기본요금을 부과할 경우에 대해 묻는 선지가 1번 및 2번 선지입니다 (3번 선지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 자체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즉 기본요금을 부과하기 이전과 부과한 이후의 수입/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를

살펴봄으로서 이부가격설정의 작동원리 및 효용에 대해 묻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제 글에 재반박을 해주신 만년플레이닝께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십니다.

독점 기업은 기존의 독점 균형에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부가격설정을 새롭게 하여 그 결과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 잉여만큼의 기본요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보기의 어디에서도 독점 기업이 기존부터 공급을 하다가 이부가격설정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식의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독점 기업의 균형으로 회귀한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어딘가에서 반드시 기존에도 공급을 했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고, 정말 최소한 그림이라도 통상 독점기업의 균형점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기업이라는 언급을 왜 주었나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부 가격 설정은 독점 기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문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지문에서 굳이 독점기업의 균형을 먼저 보여주고 그 후 이부가격점으로 넘어간 뒤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3단계 구성을 보이는 이유는 ① 통상 독점기업에서 기업은 어떻게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지, 그리고 이부가격설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지를 비교하고 ② 통상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설정으로 전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3단계 원칙이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칙은 아닙니다. 1단계는 경우에 따라 생략해도 되는 단계이며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보기의 경우는 생략해도 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참조 : 이준구, 미시경제학 370p.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일치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Q1을 선택하게 한 다음, 이 때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로 거둬들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석 : 한계비용곡선이 수평이 아니고 보통 보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 경우에도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이원준 선생님의 주장 중 윗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마저 다루겠습니다. (선생님의 나머지 주장들은 윗부분의 내용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십니다.

가격이 P일 때 공급량이 Q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해도 가격이 P라는 보장은 없다. 그저 조사만 하고 다른 가격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보기에서 전혀 쓸모없는 점을 그냥 심심풀이로 조사했다고 써 놓았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가정은 대단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서 제공한 점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제공한 점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시된 이유들 중 대부분은 윗부분에서 반박하였으며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서 반박합니다)

기본요금 적용 후의 가격이 P인 것이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이는 첫 째 P이면 Q이다가 P이다를 함축하지 않으므로 가격을 P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선생님의 주장과 모순되며 (선생님의 이와 같은 주장대로면 기본요금 부과 후의 통화료 또한 P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본요금 적용 여부는 통화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화료가 P인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소비자잉여만큼 적용해도 통화료는 여전히 P임.) 애시당초 통화료가 P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보기의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을 P라고 가정하면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기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보기'에서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통화료와 별도로 부과하려 합니다. 즉,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료만 부과하면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거듭 언급드렸듯이, 이는 기본요금 부과 전,후의 변화를 통해 기본요금 부과 효과의 효과를 보여주려는 보기의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P점에서 통화료만 부과할 때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데, 기본요금 부과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통해 이부가격설정의 효용을 시사하고자 하는 설정입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물론 목표로 삼지만, 이윤극대화점이 아닌 점에서의 생산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보기와 모순되기보단 외려 보기의 설정 상 불가피합니다.

나아가, 보기에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요금을' 에서 '이'가 지칭하는 바는 통화료입니다. 통화료와는 별개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것은 통화료도 부과한다는 것이며, 보기 앞문장에서 통화료에 대한 단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에서 이가 지칭하는 바는 보다 구체적으로 P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3월 학평 18번 문제는, 깔끔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생님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4번 및 5번선지도 복수정답처리 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기에 표현상 매끄럽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고, 특히 1번 선지의 교육청 해설은 잘못 나온 것이 맞습니다)

위 글의 내용 중 18번 문제의 출제의도를 다룬 파트는 디시인사이드의 문과취직양태 님의 글을 읽고 일리가 있다 생각되어 허락을 구하고 제 언어로 옮겨 썼습니다. 그 외의 파트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틀 전 및 하루 전에 쓴 글 및 댓글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문과취직양태 님과 댓글로 나눈 대화가 제 생각을 구조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ttp://gall.dcinside.com/itlecture/3927300> 그 분께서 쓰신 글의 링크입니다)

이의제기글과 반박글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이원준 강사님과 Semper Fi님에게 다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모의고사 21-23 [시쓰는수험생 해설]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느다
 최령(最靈)흔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느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귄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이 있어 츠츠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야 내 어딴 옮겨가리오
 산 도코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최령흔 오인 : 가장 신령스런 우리.
 * 직립불의 : 꼳꼳이 섬.
 * 고모진태 :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탁연직립 : 빼어나 곧게 섬.
 * 왕기순인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시가 해설>

<제 1수>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아무런 마음이(혹은 '뜻이') 없는 듯, 하나의 물건처럼, 서 있는 저 바위가]
유정하여 보이나다
 [(굳은) 마음과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는구나]
최령(最靈)한 오인(吾人)*도
 [만물 중에서 가장 신령하다는 우리네 인간들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꼳꼳이 서 있음이(마음을 굳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건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바위는) 곧게 선 저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고칠 적이 업나다
 [바꾼 적이 없더라]

<제 2수>
강가에 우뚝 서니
 [저 바위가 강가에 저리도 우뚝 높게 서 있으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라볼수록 더욱 높아만 보인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매서운 바람과 서리에도 변함이 없으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아무리 뚫으려한들 더욱 굳어만 간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 3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아무 말도 없는 저 바위이기예]
사귄 일도 업건만은
 [내가 굳이 벗으로 사귄 까닭이 없건만]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자시니
 [옛 모습 그대로의 참된 자태를 저토록 굳게 지니고 있는 바위이기예, 내 그를 벗으로 삼아 이렇게 앉아 있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익자삼우(益者三友)’를 풀이한 것으로, ‘익자삼우’는 ‘사귀어 자기에게 유익한 세 부류의 벗’을 가리키는데, 정직한 사람, 친구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귄 줄 모르노라
 [고모진태한 바위를 벗으로 삼으니 익자삼우를 굳이 사귄 필요가 없어지더라]

<제 5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빼어나 곧게 서 있으니, 저 바위의 자태를 본받을직 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름이 짙게 깔린 깊은 골짜기에 감춰져 있으니 (어찌 바위를)]
알이 있어 차자오라
 [알 사람이 있어 찾아오겠느냐]
이제나 광야에 옮겨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저 넓은 들판으로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모두가 (저 바위의 본받을만한 자태를) 쉽게 보게 하리라]

<제 6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참으로 어수선하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세속의 사람들이) 어찌 (마음을 쉽게 굽히지 않고 뜻을 강직하게 지니고 있는) 나를 (이때의 ‘나’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본들 반가워할 것인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야 내 어데 옮겨가리오
 [몸을 굽히고 남을 좇는다하여 내 어디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산 도코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
 [산 좋고 물 좋은 이 골짜기에서 그저 생긴 대로 늙어가리라(타고난 골은 본성을 지키며 굳게굳게 살아가리라)]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나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 멋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웃기를 여미고 입정(入定)*을 맛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던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흠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 집안에서 제일 웃어른인 ‘나’의 아버지의 유품을 보며 떠오르는 아버지의 마지막에 관한 회상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나 **찾종 하나, 술**

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에 대한 예찬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운(德潤)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혜보각사의 「서장(書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로 마침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있다. 「서장(書狀)」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체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옛 물건들을 외국의 공예품의 특질과 비교해 우리의 옛 물건을 예찬하고 있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 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직업적이어서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오래된 물건을 감상하는 것은 오락도, 취미도 아닌 부정적인 속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이태준, 「고완」 -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 사란: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 도일: 세월을 보냄.
-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문제해설: Problem Analysis〉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②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해설]

→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서장'을 보며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된 글쓴이가 당대의 성급한 제작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 보 기 >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정답 맞히기]

⑤

→ 산 도쿄 물 도쿄 골에 삼긴 대로 늘그러라

→ '하 수상'한 세정을 향해 굳이 나아가지 않고 제 본래의 모습을 지키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바위의 맑고 바른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기에, 본 수와 관련하여,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나다

→ 바꾼 적이 없더라 ▶ '유정하여', '자태' 등을 통해, 화자가 '바위'를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도 잘하지 못하는 '직립불의'를(굴하지 않고 꼳꼳이 서 있는 모습을 '바위'가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수와 관련하여,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②

→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 '높고', '불변하는' 바위의 속성을 화자가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자시니

→ '옛 모습 그대로의 참된 자태'를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진실한) 바위를 화자가 벗으로 삼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수와 관련하여,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④

→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 화자가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차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정답 맞히기]

③

→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별써 그 멋과 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외국의 공예품들은] 보기 싫어진다.

→ 글쓰기가 '외국의 공예품'을 꺼리게 된 이유가 너무도 정교하게 제작된 까닭에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그 모습이 본래의 멋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임을 알 수 있기에,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 옷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 연적을 대하는 글쓰이의 자세를 통해, 글쓰기가 연적을 아버님이 남긴 교훈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목과 관련하여, “ '연적'을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연적을)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②

→ 차종 하나, 술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 옛사람들 물건에 담긴 삶의 흔적에서 글쓰기가 아름다운 색조를 느끼고 있는 것이기에, 본 대목과 관련하여, “차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④

→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 천성적으로 순박함을 타고 났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이 생활의 때가 묻을수록 아름다워짐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대목과 관련하여,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글쓰기가)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⑤

→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서장'을 보며 글쓰기가 당대의 세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소회를- '소회'는 '마음에 품은 뜻이나 생각'을 가리킵니다. 느끼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해설: Focus, What?>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다양한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① 문단

★ ‘~노력했다. 하지만...’

→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의 화가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을 접속사 ‘그러나’를 이용하여 화두로 제시합니다.

★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

→ ‘밝고’가 ‘높은 명도’에, ‘선명하게’가 ‘높은 채도’에 대응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림 1>

<그림 2>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780nm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700nm대의 빨강(R), 500~600nm대의 초록(G), 400~500nm대의 파랑(B)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한다. <그림 1>처럼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색광의 3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주황,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 한다. 즉 주황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한편 주황, 청록, 노랑은 색료의 3원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색료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만들어진다.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감법 혼합’이라고 한다.

② 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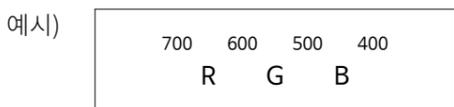
★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780nm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 가시광선의 정의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 빛의 파장이 색을 결정한다.
 2.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한다.
 3.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은 380~780nm로 결정되어 있다.
- 비록 간단한 정보 찾기가 이러한 훈련이 반복되면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문장이더라도 정보를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700nm대의 빨강(R), 500~600nm대의 초록(G), 400~500nm대의 파랑(B)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한다.’

→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여 옆에 그려둔다면 지문을 이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림 1>처럼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 색광의 3원색이 섞이는 것은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써 잘 숙지한 상태로 독해하도록 합니다.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여 흰색이 된다는 것은 400nm~700nm까지 빛의 파장을 모두 가진다는 것이고, 빨강과 초록이 섞여 노랑이 되면 500nm~700nm의 빛의 파장을 가지는 색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 한다. 즉 주황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 논리전개방식에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가 등장하면 지문에 이를 꼭 표시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 ‘이때 두 색’에서 색은 색광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색료에서의 보색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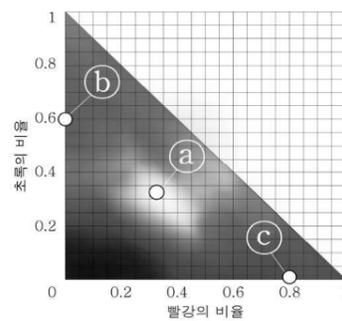
→ <그림 1>을 적극 활용하여 독해합니다. 보색관계를 그림 위에 ‘빨강↔청록’과 같이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한편 주황, 청록, 노랑은 색료의 3원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 만들어진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감법 혼합’이라고 한다.’

→ 2문단에서 색광과 색료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색광(色光)은 빛이고, 색료(色料)는 물감이기 때문입니다. 혼합 시 색변화와 그 원리는 뒤 문단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색료	색광
3원색	주황 청록 노랑	빨강 초록 파랑
3원색 모두 섞을시	검정	흰색
색 혼합 방법	감법	가법

가법 혼합의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백색광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흰 스크린의 한 지점을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대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은 흰색이 되고,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S(색)=rR + gG + b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은 빨강 필터를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을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빨강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r, g, b의 합은 1이 되며, r, g, b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가법 혼합의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은 색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색 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의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 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 내는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또 색 삼각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또 색 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서 출발하여 ⊙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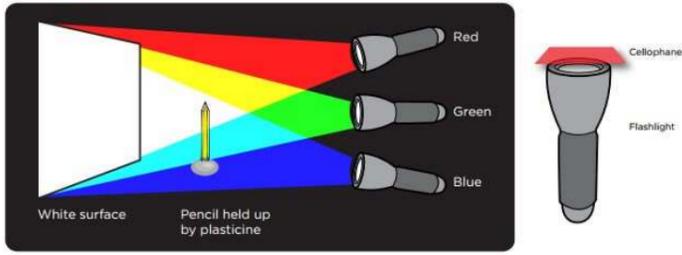
<그림 3>

③ 문단

★ ‘가법 혼합의 원리는 ~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실험 구조를 떠올리며 그려봐도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될 것입

니다. 2차원 그림이다보니 빨강과 파랑이 섞여 중간색인 자홍이 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주세요.



(사진 출처: science world)

- ★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 빨강, 초록, 파랑 필터를 통과하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광량을 차례대로 $R(l), G(l), B(l)$ 이라 하면, r, g 는 다음과 같습니다.

$$r = \frac{R(l)}{R(l) + G(l) + B(l)}, g = \frac{G(l)}{R(l) + G(l) + B(l)}$$

(단, $R(l) + G(l) + B(l) = 1$)

→ b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 색 삼각형 분석

- ★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 이 정보로 색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27번 문제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그림 3>의 ㉞, ㉟를 봅시다. ㉞의 초록 비율은 0.6, 빨강 비율은 0이므로 파랑의 비율은 $1 - 0.6 - 0 = 0.4$ 이고, ㉟의 빨강 비율은 0.8, 초록 비율은 0이므로 파랑의 비율은 $1 - 0.8 - 0 = 0.2$ 가 됩니다.

- ★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 지문이 다소 불친절하긴 하나, 짚어두고 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색을 빨강, 초록, 파랑만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색 삼각형은 좌표에 따라 삼원색이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색을 표현합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두 색을 섞는다는 것은 R, G, B 중 두 색을 섞는 것이 아니라 R, G, B가 특정 비율로 섞인 각각 다른 두 색을 또 섞는다는 의미입니다.

- ★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 채도는 지문 하단에 주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채도: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음.’ 이는 지문의 설명과 동일한 것으로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진다는 건 원색인 R, G, B 중 하나의 색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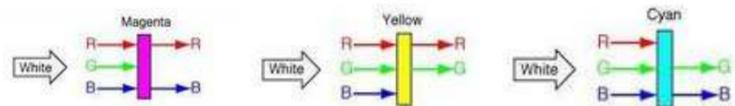
- ★ ‘또 색 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서 출발하여 ㉠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 예시로 봅시다. 초록의 비율이 1이고 빨강의 비율이 0인 꼭짓점에서 ㉠을 통과해서 그으면 $R : G : B = 0.5 : 0 : 0.5$ 가 되므로 빨강과 파랑이 같은 비율로 섞인 자홍이므로 보색입니다.

감법 혼합의 원리는 한 개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자홍, 청록, 노랑의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켜 흰 스크린에 닿게 하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색광에서 필터의 색에 따라 특정 부분의 파장은 필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색료의 3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한다. 자홍 필터는 초록, 청록 필터는 빨강, 노랑 필터는 파랑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것이다.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 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화가가 빨강과 파랑 물감을 섞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파랑 물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랑 물감의 입자들은 서로가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 안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감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④ 문단

- ★ ‘감법 혼합의 원리는 ~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것이다.’
- 이 역시 3문단의 가법 혼합 실험처럼 모식도를 그려 실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 색료의 3원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각각 보색을 흡수할 때 어떤 색이 투과할지 예측하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참고하세요.
- 사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감법혼합은 본래 색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물감 등을 이용하여 실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예시와 같이, 프로젝터가 쏘는 색광을 이용하여 감법 혼합을 할 수도 있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 ★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많이 지나갈수록 그만큼 스크린에 밝게 비치고, 필터에 많이 흡수될수록 스크린에 어둡게 비치는 것입니다.

- ★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 감법 혼합 실험을 확장하여 실생활에서의 예시를 통해 감법 혼합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 ★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 지문이 내용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다보니 정밀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강 물감이 파랑, 초록 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하고 빨강 빛을 반사하는 것은 옳으나 이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의 일부가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흡수되니 남은 일부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어둡게, 즉 명도가 떨어진 상태로 인식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는 독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태양 빛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사용했다. 모네는 그의 대표작인 ㉡<인상 : 해돋이>에서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물감을 섞어 만든 다양한 색으로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 그런데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감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서 가법 혼합되어 제3의 색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시냐크는 그의 대표작인 ㉣<우물가의 여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찍어 병치함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므로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하였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이처럼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색에 대한 이들의 탐구 정신은 후대의 화가들이 다양한 회화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영감을 주었다.

* 명도: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방출하는 광량이 많을수록 높음.

* 채도: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음.

⑤문단

※ 2000자 이상의 지문 - 영역 복합

→ 이 지문은 예술과 과학 영역이 융합된 지문입니다. 1문단에서 예술로 화두를 던지고, 2~4문단에서 과학으로 그를 받아 색에 관한 탐구를 했습니다. 1문단에서 제시했던 내용인 ‘높은 채도와 높은 명도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던 화가들’이 왜 실패했는지 5문단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이 지문은 즉 예술-과학-예술의 구조입니다.

★ ‘모네는 ~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감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 4문단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감을 혼합하면 감법 혼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도가 떨어지므로 그와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높은 명도의 색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서 가법 혼합되어 제3의 색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는 것은 감법 혼합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명도를 떨어트리지 않고,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색광(백색광이 비친 후 나온 그 물감의 색광이다. 색료가 아니므로 감법이 아닌 가법 혼합이 일어날 것이다)으로 제 3의 색을 만들려 했는데...

★ ‘<우물가의 여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한 많은 원색 점들을 찍어 병치함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므로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 물감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어 그리는 것보다 명도가 높지만, 크게 밝아지진 않은 것이지요.

★ ‘또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하였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 지문에서 ‘보색 대비’가 처음 예시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28번에서 등장하는 만큼 이전 문단들에서 보색 대비가 없었다하여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보색 대비 효과가 일어나면 대상이 선명히 보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냐크는 보색 대비 효과를 통해 **채도**를 높이려 했으나 가법 혼합이 일어나며 채도가 오히려 떨어진 셈입니다. 2문단 색 삼각형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법 혼합이 일어나 흰색인 ㉠에 가까워지면 채도가 떨어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 하지만~ .’
→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색 탐구의 한계와 의의를 병치하여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해설: Problem Analysis>

2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① 색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색광과 색료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중시한 회화 유파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맞히기]

1문단에서 인상주의파 화가들의 한계를 제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한계의 원인을 2~4문단에 나왔던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근거로 들며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⑤이 정답이다.

25.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은 각각 세 번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 ③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 ④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는 원색인 청록 물감의 색이 지닌 명도보다 낮아진다.
- ⑤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면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정답 맞히기]

⑤

R, G, B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라면 한 색의 비율이 100%라는 말이므로 이는 색 삼각형에서 색 삼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한다. R, G, B가 같은 비율로 섞여있으면 삼각형의 중심인 ㉠에 가까워진다. 지문의 내용에서 ㉠에 가까워지면 채도가 낮아지고 색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지면 채도가 높아진다 했으므로 꼭짓점에 위치한 색이 ㉠보다 채도가 높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 지문 해설을 참조하자. 색료의 3원색(자홍, 노랑, 청록)과 색광의 삼원색(빨강, 초록, 파랑)은 보색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②

→ 색광의 3원색 중 둘이 섞이면 보색(색료의 3원색)이 나온다.
→ 색 삼각형의 변의 정중앙은 색광의 3원색 중 두 색을 절반씩 섞은 것을 의미한다.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 따라서 변의 정중앙에 있는 색은 색광의 3원색의 보색, 즉 색료의 3원색(자홍, 청록, 노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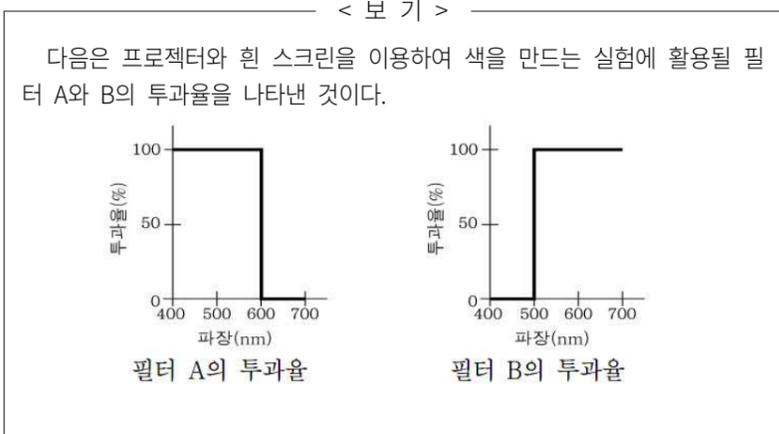
③

→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 우리 눈에 나뭇잎의 모습이 들어오는 이유는 백색광이 나뭇잎의 입자들에 비치면 해당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판단한다면,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나뭇잎에 백색광을 비치면 초록 영역대 파장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 4문단을 참조해서 보면 보색관계인 두 색을 섞으면 백색광을 비친 후 나타나는 빛들이 서로를 흡수하므로 원래의 색보다 명도(밝기)가 낮아진다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하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 ①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②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 필터 B에 투과시키면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③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킨 후,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 ④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는 경우, 두 필터의 배치 순서를 바꾸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색이 달라진다.
- 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보다 필터 A의 투과율을 50%로 낮춘 필터를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가 더 낮다.

★ <보기> 분석

필터 A: 필터 A는 400~600nm(파랑, 초록)의 파장을 100% 투과시키고 600~700nm의 파장(빨강)을 모두 흡수합니다. 즉, 빨강의 보색인 청록 필터입니다.

필터 B: 필터 B는 500~700nm(초록, 빨강)의 파장을 100% 투과시키고 400~500nm(파랑)의 파장을 모두 흡수합니다. 즉, 파랑의 보색인 노랑 필터입니다.

[정답 맞히기]

④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빨강과 파랑이 흡수되므로 초록만 스크린에 비칩니다. 두 필터의 순서를 바꾸어도 파랑과 빨강 순서대로 모두 흡수되므로 초록이 스크린에 비치는 것은 같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빨강과 파랑이 흡수되므로 초록만 스크린에 비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②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빨강이 흡수되므로 보색인 청록이, 필터 B에 투과시키면 파랑이 흡수되므로 보색인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③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나타나는데, 이를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자홍의 보색인 초록이 흡수되므로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이 100% 투과되므로 명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가 A의 투과율을 50%로 낮춘 필터를 투과시켜 얻은 필터보다 높으므로 오답입니다.

27. 윗글의 <그림 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⑤

- ① r, g, b는 ㉠에서 모두 0의 값을 나타낸다.
- ② ㉠과 ㉡를 혼합하면 ㉢보다 채도가 높아진다.
- ③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 ④ ㉢과 ㉣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색 삼각형으로 그 혼합 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 ⑤ g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과 만나는 지점에는 자홍이 위치한다.

[정답 맞히기]

⑤ g의 비율이 1인 지점이라는 것은 초록이 1, 빨강 파랑이 0인 지점으로 삼각형 높이의 끝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뺀어 ㉠을 통과하는 직선은 3문단 마지막 부분에 따라 초록의 보색인 자홍과 만난다. 따라서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서 r+g+b의 합은 1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색 삼각형 어느 지점에서든 r, g, b가 모두 0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 3문단에서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어떻게 섞어도 ㉢보다 채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 r+g+b=1을 만족합니다. ㉢에서 초록이 0.6, 빨강이 0이므로 파랑은 0.4인데 비하여 ㉣에서는 빨강이 0.8, 초록이 0이므로 파랑이 0.2로 뒤바뀐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④ 색 삼각형을 통해 채도와 관련한 색 혼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명도 차이를 나타내진 못합니다. 따라서 광량이 그대로여도, 절반으로 줄여도 색 삼각형에서는 같은 곳에 점이 찍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28. 윗글의 ㉠, ㉡와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고흐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이는 대상의 순간적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려 했다. 고흐는 이를 위해 물감을 섞어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원색과 중간색만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인 ㉠<아를로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는 이런 그의 화풍이 잘 담겨 있는데,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의 나뭇잎과 자홍빛 테라스의 대비를 통해 그의 눈에 비친 화려한 밤거리의 순간적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 ① ㉠과 ㉡는 모두,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가법 혼합 원리에 의해 채도가 높아 보이겠군.
- ② ㉠과 ㉡는 모두, 원색 점들을 병치하여 물감의 혼합으로 색이 흐릿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겠군.
- ③ ㉠과 ㉡는 모두, 보색 대비를 통해 대상의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내려 했겠군.
- ④ ㉠과 달리, ㉡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겠군.
- ⑤ ㉠과 달리, ㉡는 대상을 그리는 데 사용된 물감의 색과는 다른 제 3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겠군.

★ ㉠, ㉡, ㉢와 <보기> 분석

㉠은 모네의 <인상 : 해돋이>, ㉡는 시냐크의 <우물가의 여인들>, ㉢는 고흐의 <아를로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은 물감을 섞었기 때문에 감법 혼합이 일어나 명도가 떨어졌고, ㉡는 원색을 짙음으로 명도를 높였지만 물감이었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으며 명도가 높아진 보색 대비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법 혼합이 일어나 흐릿하게(채도 감소) 보였습니다. 그리고 ㉢는 원색과 중간색만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에서는 파란 하늘 ↔ 노란 별 / 초록의 나뭇잎 ↔ 자홍빛 테라스로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고 이를 통해 명도가 높아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 맞히기]

③
㉠에서 보색 대비 효과를 통해 명도를 높였고, ㉡에서도 또한 보색 대비가 일어났으므로 대상의 모습이 선명해지는, 즉 명도가 높아졌다는 옳은 설명이므로 ③은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물감을 섞어서 표현했기에 거리와 관계없이 채도가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 가법 혼합이 일어나긴 했으나, 채도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흐릿해졌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은 물감을 섞었기에 원색 점들을 병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 ④
5문단 ㉠의 설명에서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제 3의 색을 느끼도록 하게 한 것은 인상주의 화가 이후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시도입니다.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② ㉡: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
- ③ ㉢: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④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⑤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오답 피하기]

어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직접,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합니다. 많은 양의 지문을 읽으면서(기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사전적으로 의미를 불명확하게 안다면 무조건 네이버 혹은 다음 사전을 이용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어휘문제의 정복은 다량의 경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17년 3월 모의고사 30-32 [Fiat_Lux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 열쇠를 꽂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셔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넛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는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 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더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도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 **헌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육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촉수를 다시 갈아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파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점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 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몽텅이로 갇혀 있던 종이 문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지문 해설: Feel the Flow>

★ 소설을 읽을 때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읽읍시다. 소설 문학에서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것은 서술자의 소설 서술 방식, 등장인물의 Character, 소설의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설에서 알아내려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소설을 읽는 당사자가 서술자의 입장으로 소설을 바라보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 앞부분에서 ‘나’와 ‘안’이 등장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추론하여, ‘나’는 소설 속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입니다.

→ <앞부분 줄거리>는 출제 기관에서 소설 독해에 필요한 정보를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 ‘나’는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가 안의 제안에 따라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나’는 안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은 아닐까하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거가 부족하므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분 1> 회상: 무의미에 빠져버린 ‘나’와 ‘나’가 다시 삶에 의미를 찾게 된 계기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열쇠를 낚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 줄거리 이후,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서술을 통해 '안'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즉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노파심에 쓰지만 '안과 정의 원칙'은 등장인물 '안'과 '장'이 세운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의미로 곡해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 <부분 2> 책을 발간하지 못한 '나'와 '안'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셔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나'가 평소에는 뒷문에 이르는 길을 걸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나'는 뒷문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뒷문에 이르면 어떠한 불행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인쇄소 입구가 보인다는 서술로 미루어 보아 서술자인 나는 인쇄소의 앞에서 인쇄소를 바라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닫혀 있어야 하는 인쇄소가 유리의 하반부가 깨진 문이 열려진 채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로 누군가 문 아랫부분의 유리를 깨고 인쇄소를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문밖에 양복의 남자를 보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는 '나'와 이후의 서술에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마라', '떨리는 손',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라 한 것으로 보아 현재 서술자는 인쇄소에 있는 인물과 양복의 남자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안'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발간하고 있다 했으므로 '양복의 남자' 패거리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사람, 즉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부분 3>인쇄소에 들어온 양복의 사나이들(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과 '나'의 도주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넛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는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더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헌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란 대목에서 '나'는 신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 '안'이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있고('안'이 체포된 여부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안'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할' 때 '나'가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꿈쩍도 하지 않고 '수면'을 취한다고 했을 때 '나'가 다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열망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부분 4> 다시 나타날 것을 기대했지만 사라져버린 '안'과 나의 '삶의 의미', 그로 인해 다시 생긴 삶의 무의미

나의 초라한 욕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촉수를 다시 갈아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파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점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 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뭉텅이로 감혀 있던 종이 뭉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쳐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나’는 ‘둔화된 기억의 촉수’를 다시 세운 뒤, 책상에 공책을 편 후 기억을 통해 원고를 다시 작성하고 논문을 다시 번역합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했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는 것으로 보아 ‘나’가 이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고는 ‘안’과 관련된 것, 즉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담긴 원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나’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무의미하게 연명하고 있는 중 어느 밤에 홀로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이제 ‘안’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이전에서 ‘나’의 ‘삶의 의미’는 사실 ‘안과의 관계에서 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부분 5> 고독에 빠진 ‘나’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함.

<문제 해설: Problem Analysis>

3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맞히기]

소설에서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등 표현을 통해 서술자가 자기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오답 피하기]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이야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나란히 보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설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내면을 서술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②는 오답입니다. (09 수능, 흥파 각색 난쏘공)

③ 서술자는 ‘나’로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오답입니다. 입체적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과 병렬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 순서에 따라 소설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하게 작가의 의도대로 사건을 배치하는 소설의 전개방식입니다. (병렬적 구성 =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병치). 이 소설에서 회상(줄거리 → 소설 본문)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였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6월 평가원, 신경숙 외딴 방))

④ ‘나’가 서술자이고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였으므로 오답입니다.

⑤ 액자 구조란 이야기 속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

는 구조입니다. 이 소설에서 관계없는 이야기가 전개된 적이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06 6월 평가원,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31.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 보 기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보기 해석]

줄거리에서 알 수 있었던듯이 ‘나’는 삶의 무의미를 느낀 사람으로 보기에서는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가 ‘안’과의 관계에서 ‘안’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소설을 읽으면 서술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 찾은 것이 아닌 안과의 관계 속에서 안을 모방하면서 찾은 것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해할 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러한 해석의 준거를 새로 준 것입니다.

[정답 맞히기]

② 기다림의 순간에 서술자는 주위의 환경에 공포심을 느낍니다.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이런 서술로 보아 ‘나’는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양복의 사내들, 행인)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보다 공포심을 느낀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인쇄소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누군가 유리를 억지로 깨고 들어간 것으로,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①은 오답입니다.

③ <보기>에서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들(‘안’,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인물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 ‘안’과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는 욕망, 즉 ‘안’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가 된다 할 수 있으므로 ③은 오답입니다.

④ 인쇄소는 ‘나’와 ‘안’이 같이 작업했던 공간으로, ‘나’와 ‘안’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런 인쇄소가 ‘폐쇄된 금지 구역’, ‘간판이 떨어진(폐허의 모습)’으로 있다면 ‘나’와 ‘안’의 관계 역시 결핍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④번은 오답입니다.

⑤ ‘나’가 ‘안’과 같이 작업했던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했으므로, '나'는 '안'이 못 했던 책 발간, 즉 '안'의 욕망을 '나'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오답입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정답 맞히기]

③ ㉢: 신문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는 불충분했다.' 서술을 통해 '나'는 '안'의 안전의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들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 열쇠

'나'는 '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한 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열쇠를 꽃을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말과 '열쇠를 꽃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말은 동치임을 알 수 있고 '열쇠'와 '책'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다 만든다는 것은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①은 오답입니다.

②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와 그 패거리가 인쇄소를 무단 침입하여 수색하고 있다는 것을 지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쇄소와 은밀하게 관계를 맺은 '나'의 상황에 긴장감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②번은 오답입니다.

④ ㉣: 병이 없는 신열

'안'이 사라지고 '나'는 삶의 의미가 사라진 채 무의미한 인생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을 향한 기다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바뀔 때 병이 극에 달한다 했으므로 병이 없는 신열은 그 이전부터 앓았던 병이 없는 신열은 '나'가 안을 기다릴 때 느꼈던 고통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④번은 오답입니다.

⑤ ㉤: 헌책방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헌책방이 있었다.' 여기서 '나'가 '그들'과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헌책방'이라 생각합니다. 헌책방은 '나'가 그들과 연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장소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⑤번은 오답입니다.

<어휘: 독해의 기본>

사전적 정의를 잘 모를 것으로 예상되는 어휘들을 선별하여 넣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네xx 사전 혹은 다x 사전을 적극 이용해서 뜻 찾길 바랍니다.

- 1. 부산하다
- 2. 황망히
- 3. 밀고하다
- 4. 신열
- 5. 부응하다
- 6. 건덕지

7. 측수

<최윤, 회색 눈사람 줄거리>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던 시절의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개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강하원'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강하원'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고 자신의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 시절'의 경험은 '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시절'의 '나'는 도서를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우연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던 '안'을 만나게 되고, '안'의 제안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책을 비밀리에 인쇄해 발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일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나'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비밀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가 조직이 발각되어 책을 발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나'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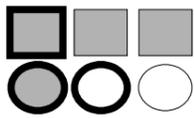
[출처] 269. 회색 눈사람 (최윤)작성자 타래난
<http://blog.naver.com/jbh8170/220956221879>

2017년 3월 모의고사 33-36 [Fiat_Lux 해설]

삼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이때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만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인지 실험 연구자들은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분위기 이론은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전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전칭(‘모든’)인가 특칭(‘어떤’)인가에 따라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삼단 논증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부당한 논증과 <어떤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타당한 논증이 주어졌을 때, 분위기 이론은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증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는 구체적으로 추론의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삼단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그 추론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심적 모형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설명한다. 가령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에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험자들은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살펴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서 상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명제의 잘못된 ‘환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어떤 A는 B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로 환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위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예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고,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플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 오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인지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용적 목

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지문 해설: Focus, What?>

① 문단

★ 삼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 삼단 논증의 정의를 언급합니다. 정의가 나오면 그 부분을 세 번 정도 읽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지문독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삼단 논증 =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 (두 전제 → 하나의 결론)

★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인지 실험 연구자들은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

→ 이 부분에서 이 지문이 궁극적으로는 삼단 논증 체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단 논증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그 오류가 일어나는 원인을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지문 구성은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16~19번 지문(지문 인식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을 읽은 후에 특별한 말이 없을 때까지 이후의 내용은 삼단 논증 추론 과정의 오류와 그 원인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1문단 주제: 삼단 논증의 정의와 확인을 위한 추론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에 관한 언급

② 문단

★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 ‘분위기 이론’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당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독해하는 수험생 누구에게나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보고 우리가 처음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은 오직 ‘이 용어는 삼단 논증 추론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나온 이론’ 뿐입니다.

★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 이 문장을 읽을 때 실제 이 명제(<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참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꼼꼼히 읽기 원하면 정오 판정을 해도 좋으나, ‘이 명제가 참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챙겨가도 괜찮습니다.

★ 즉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전칭(‘모든’)인가 특칭(‘어떤’)인가에 따라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 이를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머릿속에 도표나 구분표를 그리는 것이 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제의 성향		전제의 지칭	
긍정	부정	전칭	특칭

정리하면 이런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

→ 위의 내용과 같이 내용을 직접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1)

★ 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삼단 논증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 역접의 접속사 '하지만'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전의 내용과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독해를 해야 합니다.

★ 분위기 이론은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징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증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론의 예측과 실제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 위의 내용 역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2)

⇒ 2문단 주제: 오류의 원인 분석하는 과정 1: 분위기 이론과 그 한계

③ 문단

★ 그 추론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심적 모형 이론'이 있다.

→ 이 역시 심적 모형 이론이 추론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단 논증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논증을 할 때 추론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설명한다.

→ 심적 모형 이론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정의는 여러 번 읽고, 이를 이해한다면 쉽게 독해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 가령 <모든 사각형은 ~ 답한다는 것이다.

→ 때론 정의 부분을 여러 번 읽고도 뜻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경지식이 미흡한 것이니 의연하게 예시로 정의를 이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시를 끝까지 파고들기 바랍니다. 평가원에서 정의-예시 구조를 출제할 경우 둘 중 하나는 깊게 사고를 한다는 전제 하에 하나는 풀 수 있게 출제해 왔습니다. (정의보다 예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 지문에 그림이나 도표가 나올 경우 유심히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독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기관은 자료 하나라도 허투루 넣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를 이용해서 독해를 하라는 말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위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형 생각	~(모든 모형 생각)
완전한 추론 가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3문단 주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2: 심적 모형 이론

④ 문단

★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어휘 '주어'와 '술어'는 교육과정 상 '독서와 문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이라면 주어와 술어란 용어를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문에서는 위 정의에서 그 용어를 알지 못해도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가 대략 어떤 의미인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

이 문장에서 A와 B가 바뀌었으므로 A와 B가 주어와 술어인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어는 영어에서도 자주 다루니까 A인 것은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술어라는 것은 B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듯 뜻을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적절한 추론을 거쳐 대강의 뜻이라도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환위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뽑아야 합니다. 환위는 논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환위가 된 문장들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위 두 문장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환위가 논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었지만 환위된 문장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를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문장에 함의되어 정보를 추론토록 하는 것도 평가원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지문: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사단법인 지문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원자핵 지문

⇒ 4문단 주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3: 명제의 잘못된 환위

⑤ 문단

★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

→ 전 문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온 후 이 문장에서 그 범위를 줄였기 (한정했기) 때문이고, '~보다는'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에서 '추론 과정을 통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자신의 믿음 체계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점'을 비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장들은 그 문단의 핵심 문장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출제거리가 됩니다.

★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의 믿음 만함을 평가하고,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 위의 내용도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

→ 전제의 복잡도와 믿음 편향 효과가 비례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독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

위와 같이 표시하면 문제를 풀다 위의 명제를 잠시 까먹더라도 지문으로 찾아가서 다시 보면 명제를 기호로 나타내지 않았을 때보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5문단 주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4: 믿음 편향(결론의 내용과 믿음 체계 간 연관)

⑥ 문단

★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1. 현재 인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
2. 과거에는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다 믿었다.

이 문장 역시 1번은 드러나 있었지만 2번의 정보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 답 근거만을 찾기보단 문장을 일일이 읽으며 이러한 함의적인 표현을 가진 문장을 찾아 숨은 정보까지 다 끌어내려는 훈련을 하는 것도 본질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이자 나아가 수능 국어의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 6문단 주제: 현대 인지 심리학자들의 생각(인간의 논리적 사고체계의 부재)

<문제 해설, Problem Analysis>

33.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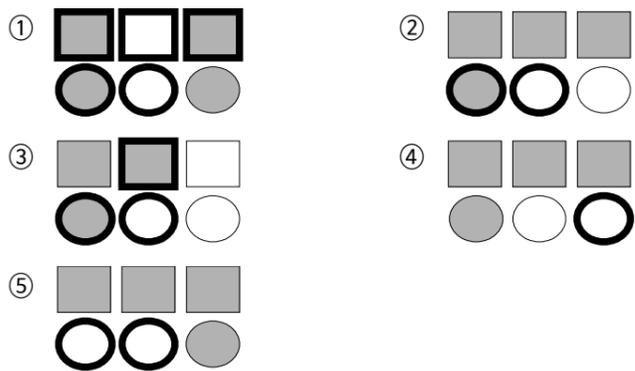
-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며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지 오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맞히기]

글의 전개 방식에 관한 문제는 문단 간 주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한 논리전개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의 지문은 인지 오류의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인지 심리학자들의 인간의 사고 체계(인지 특성)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④ 밖에 없습니다.

34. ㉠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EBSi 기준 정답률 49%, 오답률 4위)



㉠: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서 표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Fiat Lux의 잡설]

정답률이 문제 난이도에 비해 ‘굉장히’ 처참합니다. 우선 1번과 3번을 찍은 분들은 그 부분 혹은 전체 내용이 독해가 안 됐거나 시간이 없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지문의 이해가 된 상태라면 34번 문제는 지문만 따라가서 읽으면 30초 이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맞히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심적 모형의 기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보였습니다.

1. 위 논증(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의 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2. 그러나 결과는 이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안 된다, 즉 어떤 사각형은 윤곽이 없어야 한다.

이를 알았다는 전제 하에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 논증의 전제 만족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윤곽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어야 되므로 13.4%가 택한 1번과 21.8%가 택한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5.2%가 택한 1번과 3번은 논증의 전제에서 거르고 시작했어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을 볼 시간이 없었던 학생이나 지문이 붕 떠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감이 안 온 학생들은 1번과 3번을 택한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 보면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윤곽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2, 4, 5번의 그림을 보면 음영이 있는 도형에 윤곽이 있어야 하므로 답은 2번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평가원이었다면 기준 2까지의 사고를 끄집어내는 문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교육청 모의고사이다 보니 1번까지의 사고만으로도 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2까지 사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과 불만족

어떤 사각형에 윤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2, 4, 5번 모두 사각형에 윤곽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모든 판단이 끝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기준을 가지고 그림을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문에 대한 독해를 하신 후, ‘직접’ 기준을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속도는 정확성이 없는 한 그저 쓰레기입니다. 만약 사고 도중 실수가 자주 발생하신다면 그 문제를 먼저 개선하시고 속도 문제를 잡으세요.) 잡으셨어야 했습니다. 기출 분석을 하실 때 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위의 지문 해설처럼 문장 간 논리적 관계, 문장의 함의, 문단 간 논리적 관계도 찾는 훈련을 하셔야 확고한 독해력을 기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난도 문제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35. ㉠과 ㉡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 ②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
- ③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
-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

㉠: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

[정답 맞히기]

① ㉠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선 믿음 편향으로 명제를 점검한 이후 논리적 사고 과정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는 독자적인 명제에서 믿음 편향과 논리적 규칙 적용 간 연관성이 없다고 독해할 수 있었으나, ㉠ 앞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라는 말 때문에 ㉡가 일어나는 이유 역시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믿음 편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옳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② 믿음 편향은 논리적 사고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계속 자신의 믿음체계에 명제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믿음 편향이 강하든 약하든 개인의 합리성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번은 틀렸습니다.
- ③ 믿음 편향과 논리적 규칙 적용은 지문 상에서 선후 관계가 명확하므로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하더라도 이는 믿음 편향의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 ④ 전제가 논리적으로 복잡하다 해서 믿음 편향의 효과는 더 증가되지 않다고 했을 뿐, 믿음 편향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 ⑤ 아마 상식선에서 전제가 복잡하면 논리적 사고가 어렵겠지 하고 짝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닌 지문에 있습니다. ㉠, ㉡를 보시면 전제의 복잡성과 논리적 규칙 적용간의 관계가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 ㉡를 통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를 짝고 위와 같은 이유로 틀린 분들은 문제를 자신의 상식으로 풀려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36.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EBSi 기준 정답률 40%, 오답률 1위) ㉤

< 보 기 >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모든 생물학자들은 바둑 기사이다.
따라서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

- ① 전제들을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 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환위할 경우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 ②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잘못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겠군.
- ③ 분위기 이론은, 전제에서 특칭과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믿음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분위기 이론은, 첫 번째 전제의 특칭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칭으로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군.

[Fiat_Lux의 잡설]

3월 모의고사 전체 문제 중 오답률 1위인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평가원에서 출제 됐던 문제들보다는 쉬우나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명제가 존재한다와 명제가 참이다(3번)라는 개념을 잠시 혼동을 하셨거나, 지문을 장악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 아 그렇다고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답 맞히기]

⑤ ⑤의 전제 같이 명제들을 바꿔 준다면 첫 번째 전제는 전칭, 부정 명제이고, 두 번째 전제는 특칭, 긍정 명제입니다. 따라서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론이 특칭, 부정 명제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할 것입니다. 명제들을 바꾸기 전에도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특칭, 부정 명제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했으므로 ⑤의 전제와 같이 바꿨다 해서 사람들의 반응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지문 해설(4문단)에 따르면 환위를 할 경우 서로 다른 두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으므로 오답입니다.
- ② 지문 해설(3문단)에 따르면 전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추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경우를 생각하지 못 한다면, 반드시 도출된다, 즉 오류를 말 할 가

능성도 있으므로 2번은 옳으므로 오답입니다.

- ③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전제에서 특칭,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만약 논증의 결론에 특칭과 부정이 들어있으면 사람들은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으므로 오답입니다. 이 선지에 21%나 되는 학생들이 몰린 것은 선지의 끝을 순간적으로 잘못 봐서 이 선지를 명제의 참/거짓 판단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었고, 또 애초에 지문이 이해가 안 가서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④ 에번스는 믿음 편향을 연구한 인물인 것을 5문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는 믿음 편향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선지를 읽으면,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자신의 믿음 체계가 있고 그 믿음 체계가 결론(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과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옳으므로 오답입니다.

<어휘: 독해의 기본>

사전적으로 모를 것 같은 어휘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 넣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네XX 사전 혹은 다X 사전을 적극 이용해서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도출
2. 논리
3. 추론
4. 인지
5. 피험자
6. 여부
7. 환위
8. 주어/술어
9. 야기
10. 정합적
11. 절충
12. 합리

<Fiat_Lux의 지문분석: 빈칸 채우기 예시>

위 지문 해설을 할 때 대립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도표를 직접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하셨을 수 있고 다르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고 그것을 토대로 독해가 쉬워진다면, 제가 쓴 것과 다르게 하셔도 여러분들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번 도표

전제의 성향		전제의 지칭	
모두 긍정 → 긍정 결론 선호	하나 부정 → 부정 결론 선호	모두 전칭 → 전칭 결론 선호	하나 특칭 → 특칭 결론 선호

(2)번 도표

분위기 이론	실제
두 논증의 결과 비슷한 비율로 선택 예측	타당한 논증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

(3)번 도표

믿을 만한 결론	믿지 못할 결론
논리적 규칙 적용 x	논리적 규칙 적용

<해설진들의 Comment>

이번 3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여느 해의 3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수능이 아닌 겨울 공부의 중간 점검이라 생각하시고 우직하게 공부해 나가십시오.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느 3월 모의고사 보다는 어려웠으나 작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보다는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첫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실수라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온 이 성적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6월 모의고사까지, 또 9월 그리고 11월까지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간략한 계획을 세워가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력에 건투를 빌며.

2017년 3월 27일

해설진 일동

시쓰는수험생/Fiat_Lux/고속터미널 3호선/MRyu

P.S.) 검토해주신 SNUUAA님 감사합니다.

MRyu: 미숙하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언제나 힘내시고 공부에 정진해주세요.

시쓰는수험생: 수험생 파이팅!

고속터미널3호선: 요근래 국어가 가장 강력한 변별력을 가지는 듯합니다. 그 어려운 국어에서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우여곡절 시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렇게 올립니다. 비록 대학교 새내기로 누구에게 가르칠 입장은 결코 되지 않겠지만, 불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수험생 이었던 만큼 수험생의 입장에서 독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 것들, 사용해야 할 독해 틀 또는 팁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도 독해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단순히 국어가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고 싶은 마음에 금전적인 부분 하나 없이 밤을 새가며 토론하고 연구해 만들어낸 자료를 비영리적으로 배포합니다.

Fiat_Lux: 3월 모의고사를 본 지 한참이 지나서 배포를 하게 되었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NUUAA: 안녕하세요, SNUUAA입니다. 해설자분들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해설을 먼저 접하고 놀라운 자세함과 본질을 꿰뚫는 문제풀이를 보고 이런 해설지로 공부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국어영역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여러분이 이 해설을 그냥 무료로 배포되는 자료일 뿐이라고 단순히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있기에 충분히 소화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해설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지 마시고, 맞다고 해서 여러분이 낸 정답 선택과정이 올바른 과정이 아닐 수도 있으니 꼭 과정을 재검토해 주세요. 또한 해설이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틀렸는가 해설이 틀렸는가 생각하며 날카로운 칼을 갈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답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칼이 날카롭게 정답만을 찌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해주세요.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